야곱 마피아에서 손 씻기

(창38:1~11)

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야곱 마피아에서 손 씻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야곱 마피아에서 손 씻기'
마피아에는 여러 가지 마피아가 있습니다. 이태리 출신의 마피아가 있고, 러시아 마피아가 유명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일본의 마피아는 야쿠자인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야곱 마피아로 한 번 붙여봤습니다. 요셉은 이미 팔려갔습니다만 나머지 아들들을 마피아라고 이름 붙여서 '야곱 마피아에서 손 씻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 야곱 마피아에서 손 씻기를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고,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상 스님들의 인기가 요즘처럼 대중적으로 뜨거웠던 때가 아마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법회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오는 법을 몰라요. 어느 정도라는 것을 떠나서 현대인들이 그만큼 심적인 힐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요즘의 추세를 염두에 둘 때에 불교계에 몇몇 스타 멘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자비명상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마가 스님이 계십니다.
이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마가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법명이 마가입니다.
이 스님이 인터뷰 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의 영향으로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책 한 번 읽어보라고 해도 읽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성격이 비뚤어지면서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게 되고 못된 행동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라고 합니다.
종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깡패가 되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위태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못된 짓을 하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쌓여서 나쁜 짓으로 폭발하는 불량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깨어나 보니 월정사 주지스님 방에 있는 거예요. 약 먹고 쓰러져있는 것을 월정사 주지스님이 데려다가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로 네가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부처님께 전념하라는 말을 듣고 불교에 귀의해서 요즘은 이 분이 계시는 공주의 마곡사는 템플스테이의 일번지로 자리매김을 했고 중앙대, 동국대 같은 곳에서 이 분이 강좌를 열면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비명상의 내용은?
지금의 나를 내가 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명상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채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이 뛰는 것을 중계하듯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분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민과 분노와 불행한 마음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에 휩싸여 있는 나를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나에서 바라보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쓸 때에 거울을 딱 보게 되면 차마 그 인상을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자비명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마음의 불행한 감정의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며 중계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계하고 있는 나는 이상적인 자아, 윤리의식, 도덕관념,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제로 있지 않은 나입니다. 이 나로 진짜 나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이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 갑판 위에 돛대를 달기 위한 기둥이 굳건하게 박혀 있으니 그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있는 나를 본다는 것이 자비명상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자비명상을 마가 스님이 오늘날 말하기 전에, 그 핵심적 내용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명상과 같은 원리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시도한 행복으로의 진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 끝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를 말하는 것이죠.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왜 갑자기 출가한 것일까요?
가출이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집을 나갔으니 불가의 출가는 아니지만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아직 형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인데 넷째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31개 성 중에 하나인 아둘람에서 히라와 가까이 지냈을까요?
여기에 유다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야곱 마피아, 이스라엘 마피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을 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겜에서의 속임수와 잔혹한 학살을 유다가 다 경험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저질러진 부녀자 납치와 약탈, 맏형 르우벤의 서모와의 동침,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인신매매, 늙은 아버지 야곱 속이기,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과 좌절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마피아처럼 마약 판매가 없고 이렇게 열거된 악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질러진 죄적 항목으로 보자면 현대의 마피아보다 더 악랄한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피아는 절대로 자기 혈육을 팔지는 않습니다. 배신 같은 금기는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으로도 계속 유다가 나오지만, 열두 형제 중에서는 굉장히 윤리의식이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할 때에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완화시켰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책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 창세기 42장 21절에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죄적인 현실이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와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에도, 다말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는 말은 윤리적인 기준에서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마음에 있는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열한 명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봅니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에서처럼 자기가 자기를 중계합니다.
‘지금 유다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약탈했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형이 있는, 동생을 인신매매 해버리는 그런 형제들과 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무리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기에 빠져나오고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도저히 이러한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야곱 마피아의 무리 속에 섞여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 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새 가정을 꾸리는데 이 새 가정이 거품이 되어서 공중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참 희한한 것은?
창세기 36장 2절에서 에서나 이스마엘이 결혼할 때에,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라고 아내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나옵니다.
결혼이나 혼인했다는 이야기가 없이 동침했다고 나오며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유다가 새로 출발하며 꾸리는 가정에 아내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완전히 거품이라는 것,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내의 이름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해서 일찍 죽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인 오난이 계대결혼의 풍습에 따라서 형수 다말과 동침해서 형의 가계를 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애를 낳아봐야 형의 이름으로 등록될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범해서 형수로 애를 갖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이 죽게 됩니다.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죽고 오늘 본문 다음인 12절에서 아내도 곧 죽어버립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야곱 마피아로부터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형제들 틈에 있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빠져나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 둘이 일찍 죽고 아내도 죽고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는 가계가 있는데 그것이 유다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공통적인 조상들이지만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구에 수용되기 위한 그릇이 유다의 가계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야곱 그 다음 세대의 내용 중에서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 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죄인 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걷는데 1단계로 야곱 마피아 가운데 끼어있는 자기 자신을 마가 스님이 이야기하는 자기명상대로 자기가 자기를 보며 중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악하고 지긋지긋하고 환멸을 느끼며 그런 형제

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고 악이 범해지는 줄로 알고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상태에서 자기가 새로 일군 가정 안에서도 악행이 나타나면서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내가 죄를 보고 나의 참 모습을 보려면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과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감정적 변화를 또 다른 내가 봄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 된 자기를 찾고, 진실 된 자기를 찾아야 진실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진실 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를 찾지 않는 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 쓰레기라는 것이고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품에 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며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보는 내가 진짜 나입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나를 화 내지 않는 내가 보면서 그 화를 죽인다고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몰하는 뱃속에서 기둥을 붙잡고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를 찾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손에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엘과 오난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발견해 내야 합니다.
형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들과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해도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눈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죄를 알아가는 순례의 길을 유다가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도 죄와 연관되어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허락하셨

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노예가 아니고서는 그 자행되는 죄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첫 걸음이 유다의 삶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나를 중계하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여호와의 눈으로 보면서 발견하기 전까지 형들과 함께 있는 나를 내가 본 상태로는 야곱의 마피아로부터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형제들과 같이 있거나 안 있거나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피아로부터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피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마피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사탄의 마피아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고, 진정한 나의 생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거품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은 더욱 더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나를 찾게 하시고, 평강을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을 찾게 하시고, 내 가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